

Sure Hope

(Jeremiah 51:50)

*You who have escaped the sword, depart! Do not stay!
Remember the Lord from afar,
and let Jerusalem come to your mind.*

In today's Bible verse, Jeremiah is talking to the captive Jews in Babylon. Babylon had successfully conquered and destroyed Jerusalem, but God was going to punish and destroy Babylon, "Indeed Babylon is to fall for the slain of Israel" (v. 49). God wanted all the Jewish survivors who had escaped disaster not to make Babylon their home. He wanted them to get out of there. He spoke to their hearts and asked them to "remember" the Lord from where they were, and to think about "Jerusalem". At the time, Jerusalem was in shambles. It had been torn down and burned. But God asked that they let Jerusalem come to their mind. Why? Because the temple of God was there. Remembering Jerusalem would keep them from settling down in Babylon. It would make them long for the holy city, and keep them prepared to return to it. Moreover, it would give them sure hope, for Jerusalem means hope.

As a Christian, how often do you really think about your spiritual citizenship? All too often we get side stepped with every day living and forget that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residence. We even neglect ou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church. The reasons given for the Jews to remember Jerusalem are equally good reasons for us to remember the "New" Jerusalem. Therefore, let us bring to mind the "New" Jerusalem in the same way as Israel was asked to think of their "Jerusalem".

There is a Jerusalem here and now. The church of the living Christ is our holy city, our Jerusalem. We should have this city of the Great King in our mind. Do you love your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When you go to church, do you unite with its citizens? Think about it. Do you join with them in open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in Christian love and mutual help, in holy service, worship, and deep communion? Those who think about the church pray for its prosperity. Whenever it is well with us in prayer, we should let the cause of God be on our mind. Our window, like that of Daniel, should be opened toward Jerusalem. Also, we should labor for its advancement. We should remember it in the allotment of our money, the use of our time, the employment of our talents, and the exercise of our influence.

The Jerusalem on earth, the church, should bring to our mind its privileges. We should prefer its blessings above earthly gain. We should consider these blessings in our choice of our residence and occupation. We must not dishonor the place of our citizenship. God's people must not degrade His name by living in sin. We need to act consistently with her holy character. Look at Luke 19:41&42,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Evil living makes your spiritual eyes dark. You cannot see the "Jerusalem". Paul tells us, "For many walk of whom I often told you, and now tell you even weeping, that they ar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Phil.

3:18). Those who set their minds on earthly things will end their lives in destruction, not annihilation but ruin in the lake of fire forever. Oh, that all Christians had a deeper loving heart for the church of Christ. If you don't love your country, or if you forget your country, how can you be a patriot? If you don't think about Jerusalem, how can you be a good Christian?

My friends, there is a Jerusalem above. Our Father is in heaven! Our lovely resurrected Jesus is preparing our home there. Our departed family and friends who persevered in the faith are there. Our hopes and desires should always be there. Heaven should be upon our minds in all our earthly enjoyments, if not, we may grow worldly. It should be in our daily trials, if not, we may grow despondent. It should be in our associations, if not, we may idolize present friendships. Heaven should be in our minds in old age, so that we may be on the look out for our home-going. Jerusalem should be in our minds in death, so that visions of glory may brighten our last hours. Heaven should be upon our minds in all seasons, so that our conversation may be in heaven!

Please take the time, make the time, to think about the Jerusalem here below and up above. Let me ask you to consider several very serious questions which you should answer to yourself. What if you never enter heaven? What if you never meet your godly relatives again? If you're not going to heaven, where are you going? Can you hope that your present life will lead you to heaven? How do you know? Why aren't you taking the right path now? Unbelievers perish! Why be one of them? Do you wish to perish? How can you hope to enter heaven if you don't so much as think about it, or the Lord God who reigns it? Open the doors of your heart and mind, and let the heavenly visitors enter and abide.

Jerusalem meant hope for the Jews. The "New" Jerusalem means hope for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is sure hope in the belief that God will keep His promises for the future is more than a simple wish; it entails certainty based on God's demonstration of faithfulness to His people in the history of salvation as recorded in the Scriptures and as experienced by the church. In 1 Corinthians 15:19 Paul says; "If we have only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Our sure hope embodies God's promises of life after death and an eternity in heaven. Our sure hope looks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Tit. 2:13). Let the church and heaven come to your mind often, so that you long for your eternal home and don't settle down in this world. Let the church and heaven come to your mind frequently, so that you will be prepared to leave this world and enter the New Jerusalem. My dear Choong Hyun friends, letting Jerusalem come to your mind will give you the peace of sure hope. 🙏

확실한 소망

(렘 51:50)



김성관 목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정복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없뜨뜨리니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없뜨뜨리리라” (4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재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삼아서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으로부터 여호와의 기악 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무렵, 예루살렘은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시민권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매일의 삶에서 열거로 벗어나며,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영원히 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책임마저 소홀히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기억하도록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 속으로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동참함

예루살렘은 지금 이곳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한 도시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에 위대한 도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시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왕국의 시민으로서 연합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거룩한 봉사와 예배 그리고 고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진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점점 나아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제정과 시간을 드리며, 주신 달란대로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실제적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랑함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국의 특권을 우리의 마음에 이룰 것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복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주지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은사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은 적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살수시키는 안입니다.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주신 거룩한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41, 42를 보십시오. “가짜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니 좋은 편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슬기있도다”. 악한 범죄의 삶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예루살렘

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눅 3:18). 그러므로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영혼이 소멸될 않는 고통 가운데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땅의 창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함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부활의 주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건디어 났던 과거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기도는 언제나 그곳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보다 더 숭고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날마다 치려야 할 우리의 분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차 낙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누고 있는 우정이 더 중요하여져서 세상의 사함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향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영광의 꿈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사직할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초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곳에서 자속으로 떨어지거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영적인 예루살렘과 연관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할 매우 진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철대로 들어갈 수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가는 경건한 친척들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왜 지금 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멸망당하게 될 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멸망에 이르고 싶어하십니까? 만일 멸망이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순례자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서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확실한 소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소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위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므로 확실한 자들 안에 있는 이 확실한 소망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58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확고한 소망은 죽음 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구제화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스은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딤후 2:13). 교회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주 임하게 하십시오. 그대 영원한 분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목적으로 임하도록 하십시오. 그대 이 세상을 떠날 것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생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 확실한 소망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터키A



청년1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7일)

이제니온 · 이페온 지역 선교

1. 터키와 사역지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복음으로 하나되도록
2. 정탐 및 캠퍼스 사역 중 주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3. 만나게 될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루마니아A



대학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9일)

비데스티 · 갈라치 지역 선교

1.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2. 전도할 지역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오기는 교통(현지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터키B



청년1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9일)

키이세르 · 에스키셰히르 · 부르사 지역 선교

1. 사역지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2. 전도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탐과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터키C



대학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7일)

사남(西南) 지역 선교

1. 모슬렘들이 우리를 통해 받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2. 예수를 신자자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3. 사역기간 동안 대원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안전하며 하나되게 하소서

불가리아B



6교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7/9일)

소피아 · 데르빅 · 코스텔달 지역 선교

1.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대원에게 성령충만을 주소서
2. 대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불가리아 땅이 복음으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불가리아C/D



장년1부 단기선교단(7월 29일-8월 9일)

플로브디프 · 스트라조고라 지역 선교

1. 불가리아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2. 모든 대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3. 집시마을 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위하여

스리랑카A



중등1부 단기선교단(7월 30일-8월 7일)

암파라 지역 선교

1.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리랑카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 모든 대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3. 우리가 사역한 지역에서, 주님이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 난날 수 있도록

체코



유치부 단기선교단(7월 30일-8월 9일)

멜비니 · 라베르 · 라넥 지역 선교

1. 세교인들의 고난한 마음이 양 같이 되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2. 대원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의 일 하는 데 결핍함이 되지 않도록
3. 동역으로 봉사할 사람을 보내 주시기를

우즈베키스탄



경찰전도회 단기선교단(7월 30일-8월 10일)

사마르칸트 · 타슈켄트 지역 선교

1. 우즈베키스탄에, 특히 사역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2.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3. 노방전도, 캠퍼스 사역,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과테말라



대학부 단기선교단(8월 1일-8월 14일)

인도오 사역

1. 만나게 될 인도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도록
2. 사탄의 방해에 대항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3. 고산지대와 오지 지역에서, 언어 · 문화 · 음식 등에 잘 적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B



중등2부 단기선교단(8월 3일-8월 9일)

누와라엘리아 · 바둘라 지역 사역

1. 노방전도와 어린이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2. 스리랑카에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3.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6교부 선교단과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0교부 선교단,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3교부 선교단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 선교단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지금까지 우리 송헌교회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선물과 물품, 다시 말해 현지인들의 물질적 필요 해결을 통한 만남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송헌교회 2002년 단기선교부부터는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물품 제공을 피해야 한다'라며 성경과 전도지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몇몇 성도들은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이 없어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심지어 교회 방식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선물이나 기타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과연 접촉점을 위한 선물의 준비가 옳지 않은 것일까? 이는 선교에서 말하는 '접촉점'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방법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지인과 단기선교대원과의 원활한 만남을 접촉점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 원활한 만남을 위해 선물 혹은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단기선교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러한 물질적 제공이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되돌아 본다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선물을 받은 현지인들은 당장에는 단기선교대원에게 친숙하게 대하고, 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순히 듣거나 혹은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면 현지인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있는가? 매년 같은 지역, 같은 사람을 방문한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간 물건을 반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말 이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2 송헌단기선교단기선교, 꼭 알아야 할 일들 ⑤

접촉점! 선물은 왜 안 되나요?

교회와 세워졌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단순히 '기도'와 '복음 선포'만이 선교자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복음은,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에서 말하는 접촉점이란 무엇인가? 이는 선교용으로 '구속적 유비'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지인의 문화 안에서, 현지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아덴(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모시는 수많은 신상들을 살펴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고, 당시 아덴 사람들의 문화, 곧 그들의 가치관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께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 17:23).

지금까지 우리는 '접촉점'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선교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기도'와 '복음 선포'만이 단기선교의 모든 것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으니, 앞으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모든 대원들은 말씀 안에서 세워진 송헌교회 단기선교 방향성과 사역 원칙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주간송헌 680호, 682호 참조).

좋은 엄마

김수진 (신혼가정부)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만 16개월을 갓 낳긴 아들(성훈)이 있다. 처음 성훈이를 낳고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산후풍으로 어지거기 주시고 아파도 아기를 극진히 돌보면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런데 마냥 연약한 아들이 들어

지나면서 점점 '혼자서 하려는 의지'가 강해져 엄마인 나와 종종 갈등을 빚게 되었다. 멀어졌다고만 크게 다칠 만한 무거운 남비를 혼자서 들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밥은 먹지 않고 요구르탄 달라고 배를 쓰며, 화장실 슬리퍼를 못 먹게 한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겨우 돌 지난 아이가 뭘 알겠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 큰 소리로 야단을 치게 됐다.

갈등의 원인이 모두 성훈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귀찮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성훈이를 끔찍 못 하게(?) 한 적도 많았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네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며 키울 수 있나? 이제껏 내가 사랑이라 생각하며 쏘아 부은 정성이 사실은 좋은 엄마가 되려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성훈이를 임신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왜 하나님은 아기를 여자의 태 속에서 열 달 동안 자라다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열 달 동안 태 중의 생명이 자라도록 지키고 돌보면서 아기에 대한 사랑도 점점 자라 가는 것을 느꼈었다. 그리고 입덧과 불려오는 배로 인해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파도,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인내와 희생도 배우게 하였다. '인내와 희생'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열 달 동안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이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기심도,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도 목욕도 없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는 성훈이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길임을 확신한다.

살아가는 방법

박 병 후 (신혼가정부)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는 등, 우리는 너무도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왔다. 때로는 무한한 기쁨으로 모든 상처들을 잊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처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나만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휴일이 되면 바쁘게 지내던 날들을 정리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나마 내게 위안이 되며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가족들은 공휴일이 황금같이 느껴져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보내길 바랐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 뜻대로 되지 않아 방안에서 뒹굴 때가 많았다.

그런데 황금 같은 어느 휴일에 아이 엄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씩 함께 참석하길 간절히 원했다.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참석하길 했지만, 젊은 아빠가 다른 아이 엄마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썩스러웠다. 그러나 형형색색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어머니들 옆에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쁨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하고 그 조그만 입술로 목청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몽클한 것이 느껴졌고, 답답하고 없었던 마음이 조금씩은 녹듯 녹아내렸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3,4).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다. 어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가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온 종일 머리 속에 머물며 다시금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찬양한다.

신앙가
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현재 사역 중인 선교단

부서	사역지	날짜
대학부	탄자니아A	7월 16일(화)~7월 29일(월)
탁아부	탄자니아B	7월 16일(화)~7월 29일(월)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19일(금)~7월 31일(수)
15교구	몽골	7월 22일(월)~8월 1일(목)
학원전도회	도미니카 공화국	7월 22일(월)~8월 2일(금)
대학부	체코	7월 22일(월)~8월 2일(금)
고등부	인도A	7월 23일(화)~8월 1일(목)
청년2부	우즈베키스탄	7월 26일(금)~8월 3일(목)
1교구	우크라이나	7월 26일(금)~8월 7일(수)
청년1부	인도B	7월 27일(토)~8월 3일(목)
대학부	스리랑카	7월 27일(토)~8월 7일(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에는 인간의 죄, 책임, 그리고 죄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 곧 그의 거룩과 진노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초 진리이다. 따라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사실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는 결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토해낸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레 18:25). 하나님께서 이 죄와 위선은 참으시거나 사하시기에는 너무나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구토를 일으키시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손쉽게 눈감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며, 융통성이 있는 존재,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공중 예배시에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비로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벧전 1:7).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역거하시고 그것에 의해 분노하시며,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엄위(嚴威)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향이 아닌 단순히 해석하고, 하나님을 분노하시지는 분이 아닌 관대한 분으로 해석한다면, 십자가는 자연히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구약에서부터 마치며

부르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악한 행로로 한 발자국도 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렐 18:11).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선'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미 6:8)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대로도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렐 18:12).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함으로 자신의 좋은대로 행하고 만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어진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켜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갈 5:16-17).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살아가라 한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죄인(렐 2:3)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겸손히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라고 계신다. "돌아오라", 심판을 면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초대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 자신은 정령 예수의 사람인가? 문득 문득, 내 이기심 · 교만 · 욕심 · 교집이 고개를 치켜들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나의 행위가 누구누구보다 선하고 의롭다며 내심 든든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임혜원 기자)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삼손의 어머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대였음을 알릴 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일생을 울었던 어머니입니다. 부패한

으로 가득차 있었던 사사 시대를 기록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유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퇴폐한 시대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언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마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살린이 될이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5-7).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가 일러준 나살린이 지켜야 할 규정대로 포도주를 삼가며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삼손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들은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서 남다른 복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삿 13:24-25).

그러나 장성한 삼손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장성한 삼손의 행위는 천사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을 믿고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답답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행위는 그녀의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예언을 들으며 남편을 불러와 하나님께 반제를 바치고 기도하며 잉태했던 이 아들이! 이 아들을 말씀 안에 자라게 하였건만, 그의 삶은 술에 취한 삶이며 여자를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사에서 자신의 용맹을 과시했던 사사 삼손은 두 눈은 뽑힌 채, 멧돌을 따르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삿 16:28-30).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녀는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벧전 2:6). 시련 기자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사 103:17-18).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함께 오는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 맡기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11:32-34절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삼손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셨음을 신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놀랍게도 삼손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가장 치열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삼손의 기도를 용감하신 삼손은 믿음의 조상들을 섬겼다는 히브리어 11장 에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일생을 울며 기도했던 삼손의 어머니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은우' 성도를 소개합니다



삼 남매를 출가시키고 남편과 살다가, 작년 10월 지병인 당뇨를 앓던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남편과 이별하고 나니 마음이 공허하고 슬퍼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때 어머니의 권도로 충원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서 할머니를 떠나고 외로워 가 본 기억이 있을 뿐이었건만, 교회에 나와 에베레드 때면 어머니 눈물이 나오느니요, 에베레드 때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주일마다 언니를 볼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저를 좀 달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고치 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신생을 하면 그저 죽을 데 가겠지나 하고 신저게 살라고 노력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의 6개월 양육기간 동안 말씀 회귀구, 찬송가 부르기, 성경퀴즈 등에 서로서로 주 충만했습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과 아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538장 "예루살렘 금성이"

이 찬송의 가사는 클루니의 수도사였던 바니다가 쓴 2966행의 긴 시 중에서 존 메이슨 '날 박사'가 1851년에 발췌하여 구경하였고, 알렉산더 이월이 1853년에 작곡하였다.

그 원문 가사를 해설하면

1절: 첫과 꿀의 축복이 가득한 예루살렘 금성이, 너를 생각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구나. 이, 나는 잘 모른다. 거기에 어떤 기쁨이 어떤 기쁨이 어떤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2절: 시몬의 집에선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 있어,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무리들이 찬미하구나. 물론 늘 그들 중에 계시고 햇빛은 밝게 빛나니구나. 복 받은 자들의 초창은 영광스런 광채로 단장되었네.

3절: 거기에 우리 구원의 보좌가 있고 기쁨이 가득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어, 진지하는 곳에서는 순교의 개가들이 흘러나오고,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대장 예수님과 더불어 열렬히 열려 한 뜻을 잃고 있네.

4절: 아, 아름다운 복된 나라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집일세. 내 심령이 그 곳을 사모하며 열망하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저비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안식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은 은혜롭고 진지하게 불러야 한다. 원래 곡이 3박자였음을 보더라도 이 곡은 엑트제가 없이 부드럽게 가사를 어루만지듯이 음미하며 가며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찬원위원회)

믿는 사람만이

이승환 (소년부 전라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

혹신이 피부를 바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만약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아야겠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유민선 (소년부 사랑과 8반)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알려주고 말았다.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제쳐 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에게 빠져들었다. 또 타락하였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뿜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매주 주일만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죄짓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교회에 나와서는 더러운 일들로 찬양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삼손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회개하였다. 마음 속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회개하였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세상과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과 타락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힘을 주시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무너뜨렸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삼손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나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똑같이 먹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타락하며 산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진리의 샘

마태복음(Matthew)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유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계보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세계' (the genealogy)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1장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모시 오세라져 선언하고 있습니다(마 1:1). 또한 '마태'는 복음을 전해야 할 목적지를 이스라엘의 집으로 삼았습니다(마 10:5-6). 이 말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19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장 열매'도 지극히 유대교적인 것이며, 이스라엘의 입으로 가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한다. 그리고 '마태'만이 이사가 1:11-17과 호세아 6:6을 통해 제시된 구약 제사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금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막 9:13).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12:7). 또한 그의 기록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으로 수놓아져 있는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였습니다(마 1:22, 2:23, 21:4). 그는 구약을 직접 41번씩 인용했으며, 간접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합하면 130번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이 부르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행본의 기사에서 '마태'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고(마 2:2), '다윗의 자손'(마 1:1, 20, 9:27, 12:23, 15:22, 20:30, 21:9, 21:15, 22:42)이라는 용어를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외식과 탐욕에 사로잡힌 유대의 지도자들과 왜곡된 유대 종교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3장의 예수의 명에 살인에 대한 기사와 '올바른 길을 잃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8:12, 13:42-50, 22:13, 24:51, 25:30).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일곱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선지자들처럼 지적하고 있으며('마태'는 특별히 사기꾼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그러한 종교성에 빠진 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리더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을 미련없이 고발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자신을 세리라고 바뻐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이며 이기적인, 왜곡된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사건과 말씀의 반복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4장은 사건, 5장~7장은 교훈, 8장~9장은 사건, 10장~12장은 교훈, 13장~17장은 사건, 18장은 교훈, 19장~22장은 사건, 23장~25장은 사건, 26장~28장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자기 명인 이스라엘에 대해 다스리시는 행적과 가르치시는 왕의 교훈이라는 구조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마태복음에 대한 초점이 훨씬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간지 때를 돌리자, 마태복음 5장~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산을 향해서 앉아서 앉지 않았던 왕의 신로라고 생각되고 읽으면서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김윤숙 (절사, 유아부 교사)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것이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환송할찌니라"(약 5:13)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는다. 이런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부족한 나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맡을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이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권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학기 초에는 아바·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며 때 쓰던 아이들이었지만,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러는 태도가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 믿고 있을 때 능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간혹 울며 때 쓰는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실 것이라 확신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라고 말씀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고난 중에 기도하며, 오직 십자가 사랑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